

완도 판소리 '세계인 장보고' 열려

26~29일까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대에 올라
장보고축제 개막식...해상왕 활약 등 희망 메시지 전달

완도의 대표적인 무형 문화 콘텐츠인 '세계인 장보고가(歌)' 공연이 잇따라 무대에 오르고 있다. 18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월 장보고기념관에서 성황리에 시연회를 가진 창작 판소리 '세계인 장보고가(歌)'가 오는 26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공연에 이어 5월 3일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 개막식에서도 오른다. 이에 앞서 완도군은 지난 17일 서울 남산극장당 공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흥행몰이에 나섰다. 이와 함께 완도군은 지난 3월부터 시연회를 통해 자문위원 의견과 관내 문화예술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작품의 완

성도를 더욱 높이고 향후 완성작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세계인 장보고가(歌)'는 역사적 인물을 창작 판소리에 담아내는 작업을 하는 임진택 명창의 신작이다. 1부는 장보고 대사의 유년 시절과 활약상을 담았고, 2부에서는 해상왕 장보고로 활약하는 모습과 그의 시대 정신을 그려냈다. 창작판소리 연구원은 "1,200년 전 동아시아 해양 무역을 석권한 세계인 장보고의 기상을 담아낼 것"이라며 "좁은 국토와 침체한 나라 경제에 갇혀 우울한 국민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세계인 장보고가(歌) 공연이 26일부터 29일까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대에 오른다. 공연 티켓은 1인 2매 선착순 신청 가능하다. /완도군 제공

그동안 장보고 대사의 이야기는 소설, 다큐, TV드라마 등 여러 장르의 작품으로 형상화됐었다. 역사학자들은 장보고를 '해상왕'으로, 작가 최인호는 장보고를 '해신

(海神)'으로 해석하였던 바, 이번 창작 판소리는 장보고를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인'이란 관점으로 해석했다. 신우철 완도군은 "창작 판소리 '세계인 장보고가'는 1,200년 전 동아시아 해양 무역을 석권한 세계인 장보고의 기상을 담아냈다"며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다"고 이번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창작 판소리 '세계인 장보고가(歌)'는 장보고 대사의 일대기를 철저한 고증에 탁월한 해석을 더해 창작 판소리 연구원 임진택 명창 특유의 뛰어난 해학과 풍자로 재미를 더했다. 한편, 26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공연은 29일까지 1인 2매 선착순 신청 가능하며,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 개막식 공연은 야외 열린 공연으로 예약 없이 관람 가능하다. /완도=최규옥 기자

영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위반지역 사진 촬영...안전신문고로 접수

영암군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군민 누구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지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이나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나 정지선 등이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전후 사진 2장 이상을 촬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군은 2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23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소화전 주변 적발 시 2배 등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암=최복섭 기자



전국 화훼 1번지인 강진군이 올해 처음으로 명품 수국을 일본에 수출했다. 이승욱 강진군수가 수출길에 오르는 수국 상자를 컨테이너에 싣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 '명품 수국' 4천송이 일본 첫 해외수출

국내 최고 화훼단지로 명성

전국 화훼 1번지인 전남 강진군이 올해 처음으로 명품 수국을 일본에 수출했다. 18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수국 재배법인인 강진 그린화훼영농법인이 수확한 수국 4,000송이를 일본에 수출했다. 이날 보낸 수국은 회원 19명이 지난해 울 재배·수확한 뒤 저온 처리한 것이다. 강진 수국은 지난 2006년 재배를 시작한 이후 재배면적만 4.9ha에 달한다. 이는

전국(15ha)의 30%, 전남(8ha)의 56%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지난 2011년 수국 3만 송이를 첫 해외 수출을 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52만 송이를 수출했다. 국내 수국 총 수출물량의 91.7%를 점유하고 있다. 이승욱 군수는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수출시장에서 강진 질화수국의 명성을 높이고 있는 농업인들에 감사하다"며 "수국 꽃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낭만 버스킹' 목포서 즐겨요

20일부터 매주 토요일
노적봉예술공원 첫 공연



목포시는 오는 20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주요 관광지에서 '낭만향구 목포 버스킹' 공연을 선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보리마당 공연 장면. /목포시 제공

매주 주말 목포에서는 흥과 낭만이 가득한 공연이 펼쳐진다. 목포시는 오는 4월 20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주요 관광지에서 '낭만향구 목포 버스킹' 공연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버스킹이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나 광장 등에서 펼쳐지는 공연으로, 목포시는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여흥의 정취와 낭만을 선사하기 위해 공연을 기획했다. '낭만향구 목포 버스킹'은 4월 부터 6월 까지 그리고 9월 부터 10월 까지 기간 중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부터

5시 까지 유달산 노적봉예술공원야외 무대, 평화광장, 북항노을공원 등지에서 진행되며, 마술, 댄스, 보컬, 밴드,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구성된다.

자세한 공연일정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0일 진행되는 첫 공연은 유달산 노적봉예술공원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청년 댄스를 시작으로 신유식

의 춤추는 색소폰, 환상의 듀엣 뽀로시와 5인조인디밴드 타임플라워의 멋진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목포=박승경 기자

해남 특산물 '밤 고구마' 순 심기 '한창'

여름 휴가철 겨냥 조기 출하용...7월 중하순 수확

해남에서는 지역대표 특산물인 고구마의 순 심기가 한창이다. 18일 해남군에 따르면 전남 최대 고구마 산지인 해남은 매년 1000여 농가에서 총 1647ha 면적의 고구마를

재배, 436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현재 심고 있는 고구마는 여름 휴가철 판매를 겨냥한 조기출하용으로, 타 품종보다 한달 가량 일찍 정식을 시작

했다. 해남 1호 밤 고구마인 풍원미 품종으로 오는 7월 중하순부터 수확된다. 9월쯤 수확하는 호박고구마는 5월말까지 심는다. 지난해 가뭄으로 인한 수확량 저하로 품귀현상이 이어진 탓에 올해 고구마 순을 심는 손길은 풍작에 대한 기대

로 활기가 넘친다. 해남 고구마는 해양성 기후와 게르마늄(Ge) 함량이 높은 붉은 황토밭에서 재배돼 타 지역보다 당도가 높고 식이섬유와 무기질 성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리적표시 농산물 제42호로 등록됐으며, 고구마 말랭이 등 가공식품 등도 개발돼 웰빙 먹거리로 인정받고 있다. /해남=박병태 기자

클릭! 고향 소식



목포경찰, 엄마손 캠페인 실시

목포경찰서는 최근 경찰 및 녹색어머니회, 목포모범안전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서해초등학교 1학년 9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엄마손 캠페인'을 실시했다

고 18일 밝혔다. 캠페인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 어보행 3원칙(서다·보다·건다)을 포함한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이론교육 등이 진행됐다. /목포=김동균 기자



신안교육청, 기초학력 진단 사용자 연수

신안교육지원청은 최근 초·중학교 학력 업무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출발선 평등과 기초기본역량 책임교육을 위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사용자 연수'를 실시했다

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서는 '시스템 운영 매뉴얼 안내 및 실습', '구체적인 학생 관리 및 지도 방법'을 안내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영암군 군서면 학림마을회관 준공

영암군은 최근 기관사회단체장, 군의원, 도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서면 동구림 4리 학림마을회관 준공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김인재 군서면장은 축사를 통해 "편안한 쉼터이자 마을 발전의 중심점이 되는 공간으로 거듭나서 희망과 행복이 넘쳐나는 학림마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